

우리말 담화표지 ‘참’ 고찰

A study on the 'Cham' to discourse marks in Korean language.

1. 서론

본고는 우리말 담화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다양한 우리말 담화표지 중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고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하는 담화표지 ‘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²⁾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연언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에는 명제적 의미로서의 언어와 함께 언어외적인 다양한 상황정보 및 담화표지가 사용됨을 알릴 수 있다.

일상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를 사용하는데 때로는 담화표지의 사용이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 장애요소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³⁾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화·청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담화의 결속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⁴⁾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iffrin(1987)에서 담화표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요소로서 발화의 단위를 묶어주는 요소이다”고 하였고, 이한규(1996)에서 담화 표지어는 “그것이 나타나는 문장 또는 발화의 명제 의미 또는 진리조건적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말하는 이의 믿음, 진제, 태도 등을 보여주는 모든 언어적 형태이다”고 밝히고 있다.

김미숙(1997)은 “담화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지들을 지칭하는 범주로서 주로 정제된 문어에서 보다는 구어에서 나타나는 표지들을 지칭 한다”고 하였고, 임규홍(1998)에서 담화표지는 “담화상에서 월의 명제적 의미보다는 말할이의 태도나 발화 책략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1) 최현배(1956:590-593)에서 ‘참’을 놀람, 기쁨 등의 순연한 감정을 들어내는 감정적 느낌씨 중에서 ‘여김(認定)’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서정수(1996:788-789)도 최현배와 같이 ‘참’을 ‘정말, 그렇지, 아무렴, 암’과 같이 감탄사의 ‘여김’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남기심/고영근(1986:174-177)에서는 ‘참’을 ‘의지적 감탄사’로 보고 있다.

2) 의사소통이라 함은 단순히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개념이 아니고, 언어의 형식적 구조를 포함하여 언어외적인 요소인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적 지식을 비롯하여 담화, 사회 언어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3)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담화표지들은 화자의 개인적인 말버릇이나 말실수 일수도 있지만 그 언어사회에서 지역적, 문화적으로 통용되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형식으로 볼 수 있다

4) 임규홍(2003)의 ‘성별에 따른 국어 담화 표지 사용 모습’에서 부사성 담화 표지 중 정도들 나타낸 부사에는 ‘딱, 며/뭘, 막, 인자/이제, 참, 마’ 등이 있는데, ‘참’은 남성과 여성의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하거나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고 섬세한 일반적 성향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전영옥(2002)에서 담화표지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기존의 의미·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된 표현이 언어사용 또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존재 이유를 갖고 사용되는 것이다”고 하였고, 김향화(2001)에서 담화표지는 “상대방에게 말할이의 발화의 도나 심적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책략의 하나이다”고 하였다.

우리말 가운데 많이 쓰이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 ‘참’에 대한 개별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참’에 대한 연구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규홍(1996)은 담화표지의 특성에 따라 국어 담화표지를 범주화 하였는데, 크게 어휘적 담화표지(lexical discourse marker)와 비어휘적 담화표지(non-lexical discourse marker)로 구분하였다⁵⁾. ‘참’은 어휘적 담화표지 중 어휘담화표지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우원(1998)은 담화표지 ‘참’과 어찌말 ‘참’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비교를 통하여 ‘참’의 특성을 살피고, 또한 담화표지로서의 ‘참’의 담화적 기능을 ‘깨달음, 화제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 말할이의 감정을 나타내는 기능’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향화(2001)는 담화표지 ‘참’의 기능을 ‘화제를 시작하거나 화제전환을 위해 상대방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담화표지 ‘참’은 국어사전에서 명사, 부사, 감탄사 등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그 개별적 기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참’에 대하여 그 특성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⁶⁾

본고는 연구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참’에 대하여 간략히 살피고, 3장에서는 담화표지 ‘참’이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양상과 그 기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4장은 결론으로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담화표지인 ‘참’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 대화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화자, 청자, 상황 등이 긴밀하게 결합된 요소로서 그 표현 자체가 통어적, 의미적, 특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위한 장치로서 담화표지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구어적인 양상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고는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단에서 채록한 ‘전북지역 구술자료’와 ‘한국의 민담 1’에 나타나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담화표지 ‘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⁷⁾

5) 임규홍(1996)은 국어의 담화표지를 범주화하여 어휘적 담화표지(lexical discourse marker)와 비어휘적 담화표지(non-lexical discourse marker)로 구분하였다. 어휘적 담화표지는 반복 정보 담화표지(앞 담화의 성분을 반복)와 어휘 담화표지(뭐냐하면, 말하자면, 뭐고하면, 말이야, 인자, 가지고, 머시고, 말입니다, 아이가, 그 아인나, 거시기, -요, 마, 머, 참, 글썄)로 세분하였으며, 비어휘적 담화표지는 지시어 담화표지(예-, 이-, 그-, 저-, -예, -아, 음-), 감탄사 담화표지(오!, 아뿔사!, 야!, 아이고), 초분절음 담화표지(쉽, 억양, 강세)로 세분하였다.

6) 김순자·이필영(2005)의 “담화 표지의 습득과 발달”에서 연령별, 유형별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 단계에서 출현하는 담화표지 중 감탄사 담화표지가 다른 담화표지에 비해서 다양한 형식이 출현되고,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유아 단계보다 훨씬 다양한 담화표지와 형식이 출현하는데 감탄사 담화표지는 유아단계와 마찬가지로 ‘어/아, 으, 음, 응, 야, 글썄’ 등의 형태가 거의 모든 학년에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감탄사 ‘참’은 유아기나 초등학생 시절에는 나타나지 않고 중·고등학생 시절에 나타남을 엿볼 수 있다.

7) 구어는 문어와 다른 그 나름의 독자적 언어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어체는 문어체와는 달리 음성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축약, 생략, 발화의 속도, 리듬, 자유로

본고는 이 연구를 통하여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 빈도수가 많은 담화표지 ‘참’에 대한 개별 담화표지 연구에 일조하고, 또한 우리말 구어의 특징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⁸⁾

2. 담화표지 ‘참’의 특성

2장에서는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 ‘참’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은 명사, 부사, 감탄사 등의 여러 기능을 한다⁹⁾

첫째, ‘참’은 명사로서 기능을 한다.

(1) 참을 추구하다

예문 (1)의 ‘참’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치논리에서 진릿값의 하나로 명제가 진리인 것을 이른다.

둘째, ‘참’은 부사로서 기능을 한다.

(2) 가. 참 경치가 좋다

나.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나간다는 건 참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부사 ‘참’은 ‘아주, 정말로, 진실로’ 등의 의미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앞에 놓여 ‘정도’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예문 (2 가)의 ‘참’은 동사 ‘좋다’의 정도를 더 세차게 하는 기능을 하고, (2 나, 다)의 ‘참’ 역시 ‘정말로’ 또는 ‘진실로’ 등의 의미를 가지며 문장의 의미를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보인다.

셋째, ‘참’은 감탄사로서 기능을 한다.¹⁰⁾

(3) 가. 참, 언니가 이번 피서지를 어디로 갈까 하기에 독고 선생과 상의해서...

나. 이것 참! 야단났군.

운 어순, 방언, 은어’ 등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은 전체의 담화맥락 (discourse context) 속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8) 국립국어연구원(2002)에서 발간한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의 통계를 보면 부사로서 ‘참’은 78개의 개수와 347회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사용 양상은 ‘교재, 문학 구어, 잡지’ 순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감탄사로서 ‘참’은 52개의 개수와 124회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사용 양상은 ‘문학, 교재, 대본, 구어’의 순으로 사용되었고 ‘신문’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9) 본고에서 사용한 예문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을 차용하였음

10) 서정수(1994)에서 감탄사는 조사나 그 밖의 문법 요소와 결합하지 않고 쓰이고, 문장의 주어나 서술어의 기능을 드러내지 않으며, 느낌표만을 수반하여 단독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자유 부사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때 뒤따르는 문장이나 절과 구문론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 그 문장 전체와 관련된 의미를 드러내기는 하나 한 구문론적 성분의 구실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 **참**, 그 비 한번 정말 시원하게 온다.
라. 에이 **참**, 어디로 나갈 데도 없고 이게 무슨 꼴이야.

‘참’은 문장 상에서 화자의 감정과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예문 (3 가)에서 ‘참’은 잊고 있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날 때, 예문 (3 나)의 ‘참’은 어떤 대상이나 상태가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예문 (3 다)에서 ‘참’은 대상이나 사물의 모습이 감탄스러울 때, (3 라)의 ‘참’은 매우 귀찮을 때 사용하는 언어 형식이다.

감탄사의 기능을 하는 ‘참’이 담화표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¹¹⁾
첫째, 문장의 다른 성분과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분이다.

(4) 가. **참**, 언니가 이번 피서지를 어디로 갈까 하기에 독고 선생과 상의해서...
나. 언니가 이번 피서지를 어디로 갈까 하기에 독고 선생과 상의해서...
다. **참**, 그 비 한번 정말 시원하게 온다.
라. 그 비 한번 정말 시원하게 온다.

예문 (4 나, 라)의 문장에 있어서 ‘참’이 생략되었지만 문장 구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화표지 ‘참’은 문장 내의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거나 수식을 받지 않기에 문장 상에서 독립적이며 필수성분이 아니다. 즉 생략이 가능한 잉여적인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주로 발화의 어두에 쓰인다.

(5) 가. **참**, 좀 전에 친구가 찾아 왔었어요.
나. **참**, 음료수도 한 병 주세요.

예문 (5 가, 나)에서 볼 수 있듯이 담화표지 ‘참’은 일반적으로 발화의 어두에 쓰이고 있다. 이는 담화표지의 일반적인 특성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어조의 높낮이, 길이 등에 의하여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6) 가. **참**↑ 지갑을 놓고 왔네.
나. **참**↓ 이것을 어떻게 하나.
다. **참**: 정말 잘했군.

예문 (6 가)의 ‘참’은 ‘상승어조’로, 지갑을 놓고 왔음을 화자 자신이 인지하면서 ‘놀람’을 표현한 것이고, (6 나)의 ‘참’은 ‘하강어조’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 및 결과에 대하여 ‘걱정’이나 ‘낙담’ 등의 부정적인 감정적 색채가 투영되어 있으며, (6 다)의 ‘참’은 ‘장음’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만족함’ 또는 ‘기쁨’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11) 임규홍(1996)은 담화표지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담화(입말)에서만 실현되는 표지이다. 둘째,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다, 셋째,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성이 높다. 넷째, 쓰임에서 공간적·계층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사용이 임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나름대로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한다. 일곱째, 모든 담화표지는 원래 어휘적 의미에서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가. **참**, 그 비 한번 정말 시원하게 온다.

나. ?**참가** 그 비 한번 정말 시원하게 온다.

다. ?**참면서**, 그 비 한번 정말 시원하게 온다.

예문 (7 가)의 담화표지는 고정성을 가져서 (7 나, 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되거나 다른 형태로 대체되지 않는다. 즉 활용이나 곡용을 하면 비문법적이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의 특성을 첫째, 문장으로부터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둘째, 주로 발화의 어두에 쓰일 수 있는 경우, 셋째, 어조의 높낮이, 길이, 세기, 휴지 등에 의하여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참’은 담화표지의 특성에 부합되므로 담화 상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담화표지 ‘참’의 담화기능

3장에서는 담화표지 ‘참’의 담화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¹²⁾ 화자와 청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상호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에 담화의 결속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화·청자 사이의 담화표지의 사용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표지는 화자와 청자, 담화의 상황, 그리고 담화표지가 사용되는 화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양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1 출현의 위치

담화표지 ‘참’은 주로 발화의 첫머리에 온다. 이는 담화표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8) 가. **참**, 지갑을 놓고 왔네.

나. ?지갑을 **참** 놓고 왔네.

다. ?지갑을 놓고 **참** 왔네.

라. 지갑을 놓고 왔네. **참**.

예문 (8 가)에서 담화표지 ‘참’은 지갑을 놓고 왔다는 화자의 인지상태에 따른 감정적인 색채인 ‘놀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8 나, 다)의 담화의 중간에 놓인 ‘참’은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실현의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청자의 입장에서는 화자의 개인적인 말실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언어사회의 통념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의 형식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8 라)의 경우에 활발히 사용하는

12) 서상규·구현정(2005)의 “한국어 구어 연구(2)”에서 감탄사 유형과 빈도의 목록을 보면 감정감탄사는 ‘어>아>음>응>아니>야>뭐>그래>아이>예>씨’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의지감탄사는 ‘응>아니>예>그렇지>아니야>그럼>그지>뭐야>네>글쎄>그쵸’의 순이며, 형식감탄사는 ‘어>음>뭐>그래>참>예>엄>으음’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언어표현은 아니지만 지갑을 가져 오지 못한 상황에 대한 놀람이나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낙담’의 의미가 포함되어 사용하는 빈도수가 낮은 언어형식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참’은 발화의 첫머리에 주로 출현하여 화자의 정보나 감정적 색채 등을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2 다양한 담화표지와 의 결합 관계

담화표지 ‘참’은 다양한 담화표지와 결합이 용이함을 살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담화표지이기에 다른 담화표지와 결합도 다양하고 쉽게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9) 가. 아 + 참/어 + 참

나. 그 + 참/그것 + 참/이것 + 참/하 + 참

다. 나 + 참/참 + 나/에이 + 참

예문 (9)에서 담화표지 ‘참’과 결합할 수 있는 다른 담화표지는 매우 다양함을 엿볼 수 있다. (9 가)는 감정적 느낌씨에 속하는 ‘아, 어’와 결합하여 ‘갑자기 생각나는 것’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고, (9 나)는 지시어와 함께 쓰여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대하여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사용하는 언어형식으로 화자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적 색채’ 느끼게 함을 엿볼 수 있으며, (9 다)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하여 ‘매우 귀찮음’을 표현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요컨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담화표지 ‘참’은 매우 다양한 다른 담화표지와 결합이 자유로우며 담화의 결속력과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태도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언어형식임을 살필 수 있다.

3.3 담화기능

담화표지 ‘참’은 담화 상에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을 살필 수 있다.¹³⁾

‘화제를 시작하는 기능, 청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 집중 기능, 깨달음의 기능, 화자의 감정표현, 다른 화제로 전환’ 등의 담화기능이 있다.

3.3.1 화제 시작

담화표지 ‘참’은 화제나 담화의 시작을 알리는 언어 형식으로서 기능을 한다.

(10) 가. 참, 글서 인자는 교회로들 많이 가드만(제보자, 안옥순)

나. 참, 주사 여섯 대 맞았은게 이렇게 괜찮지 강 아유, 말도 말어(제보자, 최채우)

예문(10 가)의 ‘참’은 특정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는 의도에서 화제의 시작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10 나)의 ‘참’은 화자가 청자에게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방법으로 ‘참’이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담화의 시작을 알리는 언어형식으로 사용하고

13) 담화표지는 실제 담화에서 주로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전후 문맥의 연결 등 대화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참’은 발화의 첫머리에 나타나며 화제나 담화를 시작하는 언어형식으로 사용됨을 살필 수 있다.

3.3.2 주의 집중

담화표지 ‘참’은 담화를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인 ‘주의집중’ 기능을 한다.

(11) 가. 그러니께, **참** 가만히 생각하니께, 가재가 눈 없이 까짓거(한국의 민담1, 37)

나. 아 **참**, 그 뒷달에 보니까, 그 가이가 참 새끼가 싹 낳아 그래, 권보구서래미, “내게 팔으라”(한국의 민담1, 30)

예문 (11 가)에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문득 생각이 나서 상대방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담화표지 ‘참’을 사용하였고, (11 나)의 ‘참’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관하여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화표지 ‘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청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언어표현으로 볼 수 있다.¹⁴⁾

요컨대, 담화표지 다음에 언급되는 후행 정보 및 발화에 대하여 청자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담화표지 ‘참’을 사용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3.3.3 깨달음

담화표지 ‘참’은 화자가 스스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문득 깨달았을 때 사용되는 언어형식으로 사용한다.

(12) 가. **참**, 암소니께 불알이 없거든(한국의 민담1, 12)

나. 아, **참**. 결혼, 결혼할 때(제보자, 최채우)

예문 (12 가)에서는 화자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 어떤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담화표지 ‘참’이 사용되었고, (12 나)의 ‘참’은 과거 사실에 대하여 지금까지 생각지 못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담화표지 ‘참’을 언급함으로써 깨달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문득 잊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날 때 담화표지 ‘참’이 사용되어 ‘깨달음’의 담화기능을 수행함을 살필 수 있다.

3.3.4 화자의 감정표현

담화표지 ‘참’은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3) 가. 나 **참**, 지금 생각하면 폭폭혈 일이지(제보자, 최태식)

14) 청자에게 담화 내용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화자가 원하는 발화의 목적이나 의도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할 수도 있다.

나. 아, 그리고 집으로 올라니까 이거 참 한심허더만.(제보자, 최태식)

예문 (13 가)에서 담화 도중 화자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한심함’이나 ‘당혹감’을 표현하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13 나)는 특정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짜증’이나 ‘답답함’ 등의 감정을 ‘참’을 통해서 표현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참’은 담화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화자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표현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3.5 화제 전환

담화표지 ‘참’은 기존의 화제에서 새로운 화제로 전환을 하는데 사용한다.¹⁵⁾

(14) 가. 근디 참 기억나는 것이, 그 집을 지었을 때 기억나는 것이(제보자, 최태식)

나. 인자 참 이 할아버지네 아버지가 엄중해서 그렸든 어졌든 참 옛날 그 자식 키우는 것도 다 내림이 있네(제보자, 안옥순)

예문 (14 가)에서 ‘참’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새로운 화제로 전환이 필요할 때 담화표지를 ‘참’을 사용하여 기존의 화제에서 후행의 새로운 화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14 나)에서는 ‘인자’를 첨가하여 기존의 화제에서 새로운 화제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정보나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참’은 기존의 정보나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화제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담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다양한 우리말 담화표지 중 담화 상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담화표지 ‘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담화표지는 담화 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담화표지로서 담화에 참여하는 상대방에게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형식이다.

담화표지 ‘참’은 빈번하게 담화 상에서 사용되며 억양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을 달리함을 엿볼 수 있다. ‘참’은 문장에서 명사, 부사, 감탄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리고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담화표지 ‘참’은 매우 다양한 다른 담화표지와 결합이 자유로우며 담화의 결속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언어형식임을 살필 수 있다.

담화표지 ‘참’의 담화기능은 첫째, 주로 발화의 첫머리에 출현하여 ‘화제나 담화를 시작’하는 언어형식으로 사용하고, 둘째, 후행 정보 및 발화에 대하여 청자들의 관심과 흥미유발 등의 ‘주의 집중’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며, 셋째, 화자가 스스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깨달음’을 나타내는 언어형식으로 사용한다. 넷째, 담화표지 ‘참’은 자신에 대하여 ‘안타까움, 당혹감, 한심함’ 등의 감정적 색채와 상대방에게 ‘못마땅, 짜증남, 답답함’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다섯째, 담화표지 ‘참’은 기존의 정보나 내용을 벗

15) 화제를 전환할 때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언어 형식을 동원하여 화제를 바꾼다는 신호를 보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나 '새로운 화제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요컨대, 감탄사의 기능을 가진 '참'은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우원(1998), 담화표지 '참'과 어찌말 '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 제7권1호.
- 국립국어연구원(2003), 현대국어사용 빈도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구종남(2000) 담화표지 '뭐'의 문법화와 담화 기능, 국어문학 35집, 5-32. 국어문학회.
- 김미숙(1997), 대화구조로 본 '아니'의 기능, 담화와인지4, 담화·인지언어학회.
- 김선희(1995) 담화표지의 의미연구. 목원대 논문집 27집. 5-26.
- 김순자·이필영(2005) 담화 표지의 습득과 발달, 국어교육 118, p149-180
- 김영철(2004), 우리말 담화표지의 기능 고찰-'거시기'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 52집. 23-36. 한국언어문학회.
- 김영철(2006), 국어담화표지 '어' 고찰, 국어문학41집, 국어문학회.
- 김향화(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집, 113-1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남기심·고영근(1986),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서상규·구현정(2005), 한국어구어연구(2),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신지연(1988), 국어간투사의 위상연구, 국어연구83, 국어연구회.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말>17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오승신(1995), 국어의 간투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월인.
-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연구, 담화와인지3,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규홍(1995), 국어담화표지 '뭐냐'와 '있지'에 대하여, 어문학56, 한국어문학회.
- 임규홍(1996), 국어담화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인지2,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규홍(2003), 성별에 따른 국어 담화표지 사용 모습, 어문학 83호. 93-113. 한국어문학회.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역락.
- 최운식(1987), 한국의 민담1, 시인사.
- 최현배(1956),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Schiffrin(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영문초록

A study on the discourse function of 'Cham' to discourse mark in Korean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a characteristic of 'Cham' as an interjection and the function of it as a discourse mark in everyday Korean language.

'Cham' function as an interjection in sentence, also its faculty is changed its meaning and function by the intonation or situation.

The discourse function of 'Cham', the discourse mark is various as "the beginning of discourse, an attention, realization, expressing emotions of speakers, diversion of topic" by the situation.

'Cham' is unnecessary in meaning of sentence, but it is a necessary linguistic form to communicate the purpose or intention of discourse to the listener with effective.

영문핵심어

discourse mark, discourse function

국문초록

본고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감탄사 '참'에 대한 특성과 함께 담화표지로서 담화 상에서 어떠한 담화기능을 담당하는가를 고찰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담화표지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부사로서 '참'의 특성과 함께 부사 '참'이 담화표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담화표지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참'이 상황이나 억양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을 달리함을 엿볼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담화표지 '참'의 출현의 위치와 다른 담화표지와의 결합관계,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기능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참'의 담화기능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화제 시작, 주의 집중, 깨달음, 화자의 감정표현, 화제 전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화표지 '참'이 의미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 형식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담화표지, 담화기능